

함께 읽는 대한민국... '책의 해' 막 올랐다

문광부·조직위 출범식

엠블럼·슬로건도 공개



이동 서점 북트럭 운영

'위드북 캠페인' 등 개최

매달 책 생태계 포럼도



'2018 책의 해'의 막이 오른 가운데 올해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자리한 지음책방.

출판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 도서를 장려하기 위한 '2018 책의 해'의 막이 올랐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읽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출판부흥의 원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책의 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 각지의 서점, 도서관은 물론 SNS에서도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고 나누기 위해 다양하게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책의해조직위원회'와 함께 '책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도종환 문화부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서점·도서관 등 범출판계와 문학계, 언론계 등 23개 기관·단체장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책의 해' 엠블럼

(상징)과 슬로건(표어)도 공개했다.

표어인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 무슨 책 읽어?'는 함께 읽는 재미로 책의 가치를 인식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슨 책 읽어?'는 젊은 층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등으로 활용해 확산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책의 해' 사업은 '함께 읽기'에 중점을 뒀다. '책의 해' 상징을 장착한 책 트럭이 전국 독자를 찾아가는 '이동 서점, 북트럭'과 서점의 심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국 심야 책방의 날'이 운영된다. 또한 서점이 없는 문화 소외지역에 책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점 시간을 연장해 독자들의 방문을 견인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지자체에서도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공공도서관이 선정한 책 읽는 가족이 모이는 '책 읽는 가족한마당 축제'를 열고 우수 독서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책축제 우

수프로그램 지원과 책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책 마을 지정' 사업 사업도 전개한다.

미래 출판 혁신과 출판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도 개최된다.

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 등 책 생태계 전반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는 '책 생태계 포럼'이 3월부터 매달 개최된다. 오는 29일 '책 생태계의 오늘을 말한다'를 시작으로 12월 결산포럼까지 총 8회의 국내포럼과 2회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특히 10월에는 뇌과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독자를 바라보는 '읽기의 과학', 11월에는 독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 추천 방향을 살피는 '책으로 세상을 큐레이션하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이를 토대로 12월 결산포럼에서는 새 정부의 출판·독서 비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하루 10분 함께 읽기 캠페인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출범 등이 이어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mailto:skypark@kwangju.co.kr)

광주국악방송 26일 개국 4주년 특집방송

광주국악방송이 오는 26일 개국 4주년을 맞이해 특집방송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방송은 '네 번째 봄'이라는 제목으로 '남도마실'(월~토, 오전 9시, 진행 지정남)에서 진행되며 광주국악방송이 바라보는 시선, 광주국악방송을 들여다보는 시선을 담아낸다.

'남도마실'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광복 예술 감독, 정읍시립국악단 왕기석 단장, 배우 윤희철, 전남대학교 나경수 교수가 출연한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악, 전통문화, 국악방송, 전라도를 주제로 나누는 소소하고 유쾌한 수다를 통해 광주국악방송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 광주국악방송 개국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바투의 상사디아' 프로그램(월~금, 오후 2시)에서는 진행자 이상화, 김봉영, 전주국악방송 '온고을 상사디아' 프로그램(토~일, 오후 2



왕기석

시)의 진행자 정진권, 방수미가 함께 광주국악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한다. 소리꾼이자 진행자인 방수미, 이상화, 김봉영의 합동 라이브 공연도 마련된다.

이날 방송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은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국악방송 페이스북 북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다.

라디오 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 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딩더쿱 플레이어'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61년만에 첫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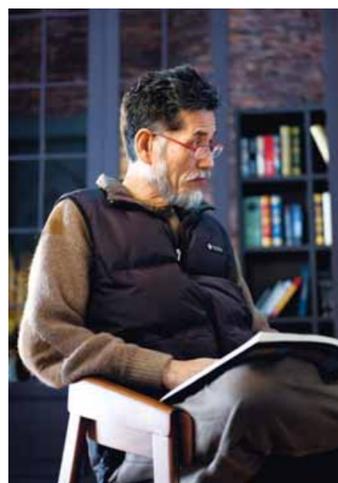
28일까지 갤러리D

사람의 얼굴에는 인생을 살아온 여러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다. 기쁨, 슬픔, 행복 등 다양한 감정들을 담은 사람의 표정을 카메라로 포착해 내는 일은 누군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다.

올해로 창립 61년째를 맞은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채만수) 회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촬영해왔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회원전을 갖는다.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 뒤 갤러리D.

'인(人)+연(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28명의 회원들이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우리가 찾는 사진관에서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이들로 자신의 감성이나 의지를 담아 작품을 찍기 보다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 작품 활동에 갈등을 느껴왔다.

채회장은 "회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왔지만 대부분 고객이 원하는 상업사진이었다"며 "그들에서 벗어나 사진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시도했고



채만수 작 '응시'

그 결과물들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11, 010-2611-73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아트페어 광주미협이 또 만나

불참 입장 번복 3차 공모 참여 '지난해 부실 행사 논란' 비판

2차 공모까지 주관 단체를 찾지 못했던 광주국제아트페어 주관처로 지난해 행사를 치르며 보조금 부실 정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광주미술협회가 재선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의 안일한 문화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2차 공모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고, 올해 아트페어 참여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던 광주미협이 2주 만에 다시 제안서를 접수, 협회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을 한 재공모에는 광주미협을 비롯해 지역문화예술단체 1곳과 협회 2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팀 등 모두 2팀이

지원했고 20일 열린 제안서 평가에서 광주미협이 1순위를 차지했다. 7명이 심사에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광주미협은 지난해 행사 때 불거진 문제로 '패널티'(감점제도)를 받았지만 전체 접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4월 6일 열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순위 2팀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아트페어 주관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논란을 일으키며 광주아트페어의 위상을 추락시킨 광주미협이 단독으로 또 다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아트페어 불참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후 다시 제안서를 내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절차에 따라 미협이 제안서를 제출, 심사위원들이 1순위로 선정했고,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을 주문했다"며 "올해 행사는 과도기 형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미협 관계자는 "아트페어 불참 선언 후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주관 단체로 선정이 확정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아트페어는 9월 6일~9일까지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용,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